#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와 정책적 함의

*Childbirths among Self-employed Households: What Are the Policy Implication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자영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비정형적인 근로행태 등은 이들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실시한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를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우선 자영업이라는 근로형태의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자영업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임금근로 등을 경험한 이후에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출산을 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만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셋째, 자영업자들 역시 자녀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영업자들이 일가정양립제도와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에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의 소득과 직업의 불안정은 저출산 극복이나 질 높은 인적자본 확보에 상당한 장애가 되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절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영업자들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가정 내 교육과 정서적 교감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야간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서론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는 원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크게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 인프라 미흡, 일-가정양립 곤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비친화적인 사회환경, 가치관 변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저출산 원인들은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거나 동등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수준,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부모의 취업상태 등에 따라 주요 저출산 원인들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가정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 출산을 억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모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비해 일-가정양립 곤란이 더 중요한 저출산 원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출산수준과 더불어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부모의 경제적 특

성으로 취업 여부, 직업, 산업, 종사상지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종사상지위 중 하나로서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청년 창업 증가, 조기퇴직과 전직 등으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제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인 불안정성은 이들의 출산과 자녀양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경제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이 증가한다면 자영업자들의 출산 욕구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출산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의 자녀 돌봄 곤란은 인구의 자질을 낮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의 출산 및 자녀양육 행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기존 연구들이 이용한 조사들의 표본규모에 한계가 있어 종사상지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5인 미만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표본조사(대면심층면접)인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규모는 통계청의 2010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로서 모집단에 기반하여 지역별 및 산업별로 표본추출한 전국 5인 미만 개인사업체(자영업자) 11,802개(조사완료 11,667사업체)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소상공인도 영세자영업자로 포함하였다. 표본추출단위는 개인사업체이나 조사는 자영업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사업장 방문 면접조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현장조사는 2011년 12월 31일을 조사기준시점으로 2012년 3월~6월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그간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현안문제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출산 및 자녀양육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조사대상으로서 여성 자영업자 또는 남성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가임기연령층(15~49세)인 가구들의 출산 및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대상의 주요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 자영업자에는 여성 본인이 자영업자인 경우가 42.9%, 남편이 자영업자인 비율이 57.1%로 나타난다. 분석대상 여성의 연령층은 40대가 73.1%로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분석 대상 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6.6%로 높고, 다음으로 38.9%가 대졸 이상이다. 가구소득은 연 2천만원~4천만원 미만 39.5%, 5천만원 이상 34.2% 등의 순이다. 종사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30.4%, 숙박음식업 18.8%,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4.7% 등의 순이다. 임금근로를 경험한 비율은 67.8%이다. 자영업에 종사한 총 기간은 10~20년 미만 34.0%, 0~5년 미만 31.5%, 5~10년 24.6% 등의 순이다.

**표 1. 분석 대상: 여성 자영업자 본인(15~49세) 또는 남성자영업자의 배우자(15~49세)**

(단위: %, 명)

| 구 분 | | 계 | 가임기 여성 본인이 자영업자인 경우 |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 |
|---|---|---|---|---|
| 전체 | | 100.0 | 42.9 | 57.1 |
| 연령*** | 15~19세 | 0.1 | 0.0 | 0.1 |
| | 20~24세 | 0.4 | 0.0 | 0.8 |
| | 25~29세 | 1.8 | 1.2 | 2.3 |
| | 30~34세 | 8.3 | 5.8 | 10.1 |
| | 35~39세 | 16.3 | 15.7 | 16.8 |
| | 40~44세 | 30.6 | 31.3 | 30.0 |
| | 45~49세 | 42.5 | 46.1 | 39.9 |
| | 계 | 100.0(4,816) | 100.0(2,066) | 100.0(2,750) |
|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4.5 | 4.3 | 4.7 |
| | 고졸 | 56.6 | 60.5 | 53.6 |
| | 대학졸 이상 | 38.9 | 35.2 | 41.7 |
| | 계 | 100.0(4,815) | 100.0(2,066) | 100.0(2,749) |
| 가구연소득*** | 2천만원 미만 | 5.6 | 3.4 | 7.4 |
| | 2천만원~4천만원 미만 | 39.5 | 27.4 | 48.6 |
| | 4천만원~5천만원 미만 | 20.6 | 23.0 | 18.8 |
| | 5천만원 이상 | 34.2 | 46.2 | 25.3 |
| | 계 | 100.0(4,782) | 100.0(2,047) | 100.0(2,735) |
| 종사업종*** | 농림, 광공업 | 8.7 | 4.5 | 11.9 |
| | 전기하수 · 건설업 | 3.3 | 0.9 | 5.0 |
| | 도소매업 | 30.4 | 30.4 | 30.4 |
| | 운수업 | 7.0 | 0.5 | 11.9 |
| | 숙박음식업 | 18.8 | 26.2 | 13.3 |
| |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 4.4 | 5.4 | 3.8 |
| |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 12.6 | 15.5 | 10.5 |
| |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 14.7 | 16.6 | 13.2 |
| | 계 | 100.0(4,817) | 100.0(2,068) | 100.0(2,749) |
| 임금근로여부*** | 경험 없음 | 32.2 | 44.1 | 23.4 |
| | 경험 있음 | 67.8 | 55.9 | 76.6 |
| | 계 | 100.0(4,816) | 100.0(2,065) | 100.0(2,751) |
| 자영업기간*** | 0~5년 미만 | 31.5 | 42.2 | 23.5 |
| | 5~10년 미만 | 24.6 | 26.0 | 23.6 |
| | 10~20년 미만 | 34.0 | 26.9 | 39.3 |
| | 20년 이상 | 9.9 | 4.9 | 13.6 |
| | 계 | 100.0(4,714) | 100.0(2,023) | 100.0(2,691) |

* pr 〈0.05, ** pr 〈0.01, *** pr 〈0.001

## 2. 자영업자 가구의 출산행태

자영업자(여성 기준 15~49세)의 출생아수는 2명 63.1%, 1명 20.4%, 3명 이상 9.9%, 무자녀 6.6% 등의 순으로 평균 1.77명이다. 20~44세 자영업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1.66명으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로서 20~44세 취업여성의 1.60명에 비해 다소 높다. 2009년 조사에서 전체 여성(20~44세)의 평균 출생아수가 1.66명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은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 부부는 일하는 시간과 자녀양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취업여성보다 출산수준이 높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미세한 이유는 '자영업'이라는 종사상 특성 이외에 많은 요인들이 이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여성기준 15~49세)의 업종별로는 운수업(1.87명), 전기 · 가스 · 하수 · 폐기건설업(1.87명), 농림 · 어업, 광공업(1.84명), 금융보험업, 시설관리업(1.81명), 음식점업 및 숙박업(1.79명), 도매업 및 소매업(1.79명), 출판 · 통신 · 예술 · 기타개인서비스업(1.67명), 전문기술,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업(1.62명)의 순으로 출산수준이 높다. 업종별 연령구조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업종에 대해 여성의 연령분포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한 후 출산수준을 측정한 연령 표준화 평균 출생아수는 대체적으로 표준화 전과 동일한 업종들 순으로 높으며, 다만

**표 2. 자영업자 가구의 출생아(15~49세 여성 기준)**

(단위: %, 명)

| 구분 |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계 | (N) | 평균 |
|---|---|---|---|---|---|---|---|
| 본 자영업자 조사(15~49세) | 6.6 | 20.4 | 63.1 | 9.9 | 100.0 | (4,816) | 1.77 |
| 본 자영업자 조사(20~44세) | 9.6 | 24.3 | 57.2 | 8.9 | 100.0 | (2,851) | 1.66 |
|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20~44세)[1] | 9.0 | 26.6 | 54.3 | 10.1 | 100.0 | (3,585) | 1.66 |
|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취업여성 20~44세)[1] | 12.6 | 24.1 | 54.9 | 8.5 | 100.0 | (1,501) | 1.60 |

주: 1)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p.379.

**표 3. 자영업자 가구의 연령별 평균출생아수(15~49세 여성 기준)**

(단위: %, 명)

| 구분 | 전체 업종 | 농림 · 어업, 광공업 | 전기 · 가스 · 하수 · 폐기건설업 | 도매업 및 소매업 | 운수업 | 음식점업 및 숙박업 | 금융보험업, 시설관리업 | 전문기술 · 교육 · 보건 복지서비스업 | 출판 · 통신 · 예술 · 기타 개인서비스업 |
|---|---|---|---|---|---|---|---|---|---|
| 평균 | 1.77 | 1.84 | 1.87 | 1.79 | 1.87 | 1.79 | 1.81 | 1.62 | 1.67 |
| (연령표준화) | (1.77) | (1.84) | (1.86) | (1.82) | (1.89) | (1.83) | (1.83) | (1.69) | (1.71) |

업종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들 뿐이다.

자영업자(여성기준 15~49세) 중 8.7%만이 추가로 출산할 계획에 있다. 현 자녀수별 추가 출산의향 비율은 무자녀인 경우 61.9%, 1자녀인 경우 18.6%, 2자녀 경우 1.1%, 3자녀 이상의 경우 1.3%이다. 자영업자의 추가출산중단 이유로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39.2%, '나이가 많아서' 30.4%,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18.9%,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6.9%, 기타 4.5% 순으로 높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로서 전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중단 이유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24.1%, '나이가 많아서' 8.0%,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7.4%,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12.8%, 기타 17.7% 등이다. 자영업자의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와 '나이가 많아서' 이유는 전체 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와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 등 다른 종사상지위를 경험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계획자녀 충족이나 고연령 이유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이유들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 중단 이유로는 무자녀인 경우 기타,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과 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등 순으로 높다. 여기에서 '기타' 이유는 불임 등 의료적 이유가 크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무자녀를 선택하겠다는 조사결과는 자영업자들의 결혼과 출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함의를 제시해 주고 있다. 1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추가출산 중단 이유로는 '나이가 많아서'와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고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도 18.3%로 비교적 높다. 고연령이나 계획출산 완료의 이유는 어느 정도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절반 이상(54%)을 차지하고 있다. 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치관에 기반한 특히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비율이 아주 높은 반면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가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줄어듦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연령층으로 그리고 원하는 자녀수를 달성하였다는 이유가 더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 1자녀 혹은 2자녀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업종 간 추가출산 중단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 3. 자영업자의 자녀양육행태

### 1)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자영업자(여성기준 15~49세)가 겪고 있는 미취학 자녀 양육의 애로사항은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이하 양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교

**표 4. 자영업자(여성기준 15~49세)의 자녀추가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 추가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 | | | | 계 (N) |
|---|---|---|---|---|---|---|
| |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 나이가 많아서 |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 기타 | |
| 전체 | 39.2 | 30.4 | 18.9 | 6.9 | 4.5 | 100.0 (4,213) |
| 현 자녀수($x^2$=692***) | | | | | | |
| 0자녀 | 0.0 | 29.4 | 15.4 | 9.7 | 45.6 | 100.0 (79) |
| 1자녀 | 18.3 | 35.7 | 25.6 | 9.7 | 10.7 | 100.0 (727) |
| 2자녀 | 43.7 | 29.9 | 17.9 | 6.3 | 2.3 | 100.0 (2,920) |
| 3자녀 이상 | 51.6 | 25.2 | 15.7 | 6.1 | 1.4 | 100.0 (487) |

* pr 〈0.05, ** pr 〈0.01, *** pr 〈0.001

육비 부담(이하 교육비 부담)',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듦(이하 자녀대면시간 부족)',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이하 자녀질병시)',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이하 자녀학습지도 곤란)'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업종 간 애로사항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농림어업 · 광공업의 경우 교육비 부담 비율이 양육비 부담보다 높으며,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도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농어촌지역에서 보건의료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8.8%로 아주 낮은 반면, 자녀학습지도 곤란은 27.8%로 상대적으로 높다. 도소매업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업종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데다가 하루 종일 가게(사업장)를 운영하고 있어 그만큼 자녀 학습을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가구 중 부부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0.4%보다 높고,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55.4%)와 농림 · 광공업(35.9%) 다음으로 높다.

자영업자가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교육비 부담, 양육비 부담, 자녀학습지도 곤란, 자녀대면시간 부족, 자녀 질병 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운수업, 음식숙박업 및 금융보험업 · 시설관리업 자영업자들은 양육비 부담을 그리고 타 업종들은 교육비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본적인 자녀양육비조차 부족함을 의미한다.[1] 자영업자가 중학생 자녀 양육 시와 고등학교 자녀 양육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도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와 마찬가지

1) 본 조사에 의하면, 업종별 연간소득은 운수업 2,236만원, 출판통신 · 예술 · 개인서비스업 2,503만원, 금융 · 부동산 · 시설관리업 2,825만원, 숙박음식업 2,948만원, 기술 · 교육 · 보건서비스업 3,199만원, 농림 · 광공업 3,233만원, 도소매업 3,312만원, 전기 · 하수 · 건설업 3,704만원 순으로 낮음.

**표 5. 자영업 종사 가구 중 부부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비율**

(단위: %, 명)

| 구 분 | |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 계 (N) |
|---|---|---|---|---|
| 전체 | | 30.4 | 69.6 | 100.0 (4,816) |
| 종사업종*** | 농림, 광공업 | 35.9 | 64.1 | 100.0 (420) |
| | 전기하수 · 건설업 | 25.6 | 74.4 | 100.0 (157) |
| | 도소매업 | 32.7 | 67.3 | 100.0 (1,465) |
| | 운수업 | 3.0 | 97.0 | 100.0 (337) |
| | 숙박음식업 | 55.4 | 44.6 | 100.0 (908) |
| |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 19.4 | 80.6 | 100.0 (214) |
| |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 15.7 | 84.3 | 100.0 (608) |
| |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 20.7 | 79.3 | 100.0 (708) |

* pr 〈0.05, ** pr 〈0.01, *** pr 〈0.001

이다. 다만, 상급학교일수록 양육비보다 교육비 부담을 더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중학생 자녀 양육 시 업종 간 애로사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 2) 자녀 돌봄

자영업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임금근로자와 다르거나 불규칙하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시스템이나 일-가정양립시스템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맞추어져 있어, 자영업자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일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방치될 위험성도 있다. 특히 부모들이 지나치게 바빠 직접적인 양육시간이 줄어들고 시설이나 타인에게 맡겨지는 것도 어린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자영업자 및 배우자의 일 종료시간을 보면 밤 10~12시에 일을 종료하는 비율은 자영업자 본인의 경우 23.8%, 자영업자의 배우자의 경우 24.6%이며, 여성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자영업자인 경우 24.7%, 본인의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 33.0% 등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새벽(0~7시)에 일을 끝낸 비율은 5% 내외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대를 자녀의 연령 및 취학여부로 구분하여 진단해보자. 자영업자가 0~2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비율은 아침 7~8시까지 아주 높으나 이후 급격하게 낮아져 아침 9~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는 50~60% 사이로 가장 낮아진다. 그 후 시간대에서 부 · 모의 직접돌봄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나 오후 8~9시에서야 90% 이상이 된다. 그러나 오후 12시까지도 부모의 직접돌봄 비율은 96.9%로 부와 모 양쪽 다 자정을 넘겨서 일터에서 집으

## 표 6. 자영업자(15~49세 여성 기준)의 미취학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 구분 |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듦 |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때 | 기타 | 계 (N) |
|---|---|---|---|---|---|---|---|
| 미취학 자녀($x^2$=61.1**) | 39.6 | 23.5 | 8.6 | 10.9 | 8.7 | 8.7 | 100.0 (921) |
| 농림어업 · 광공업 | 21.5 | 47.6 | 6.4 | 2.2 | 20.9 | 1.5 | 100.0 (41) |
| 전기 · 가스 · 하수 · 폐기건설업 | 34.3 | 24.1 | 9.0 | 12.2 | 11.8 | 8.7 | 100.0 (129) |
| 도 · 소매업 | 39.9 | 8.8 | 27.8 | 8.0 | 8.8 | 6.7 | 100.0 (36) |
| 운수업 | 43.6 | 19.6 | 6.0 | 13.8 | 4.2 | 12.9 | 100.0 (95) |
| 음식 · 숙박업 | 37.9 | 36.5 | 1.9 | 15.2 | 2.9 | 5.7 | 100.0 (64) |
| 금융보험업 · 시설관리업 | 39.6 | 28.0 | 8.1 | 8.1 | 8.6 | 7.6 | 100.0 (295) |
| 전문기술 · 교육 · 보건복지서비스업 | 44.8 | 21.3 | 7.5 | 10.3 | 5.3 | 10.9 | 100.0 (193) |
| 출판 · 통신 · 예술 · 기타개인서비스업 | 40.3 | 21.9 | 9.5 | 10.5 | 8.1 | 9.8 | 100.0 (279) |
| 초등학생 자녀($x^2$=62.2**) | 33.7 | 38.4 | 9.6 | 6.9 | 5.8 | 5.7 | 100.0 (1,517) |
| 농림어업 · 광공업 | 29.7 | 48.4 | 11.4 | 4.9 | 4.6 | 1.1 | 100.0 (97) |
| 전기 · 가스 · 하수 · 폐기건설업 | 30.1 | 41.5 | 7.6 | 8.2 | 7.8 | 4.8 | 100.0 (224) |
| 도 · 소매업 | 33.0 | 41.5 | 13.1 | 8.3 | 0.0 | 4.2 | 100.0 (75) |
| 운수업 | 36.6 | 28.4 | 9.4 | 8.1 | 5.7 | 11.7 | 100.0 (150) |
| 음식 · 숙박업 | 42.6 | 37.6 | 5.0 | 5.1 | 8.2 | 1.6 | 100.0 (155) |
| 금융보험업 · 시설관리업 | 37.0 | 36.4 | 11.6 | 5.0 | 4.8 | 5.1 | 100.0 (435) |
| 전문기술 · 교육 · 보건복지서비스업 | 31.7 | 38.7 | 10.3 | 7.1 | 6.9 | 5.3 | 100.0 (277) |
| 출판 · 통신 · 예술 · 기타개인서비스업 | 35.2 | 36.2 | 10.7 | 7.5 | 4.1 | 6.3 | 100.0 (448) |
| 중학생 자녀($x^2$=45.4) | 33.2 | 42.4 | 10.9 | 5.2 | 4.1 | 4.3 | 100.0 (1,340) |
| 농림어업 · 광공업 | 25.6 | 51.1 | 9.5 | 5.8 | 4.5 | 3.5 | 100.0 (115) |
| 전기 · 가스 · 하수 · 폐기건설업 | 34.7 | 50.4 | 10.4 | 1.0 | 1.1 | 2.3 | 100.0 (91) |
| 도 · 소매업 | 31.7 | 41.2 | 12.3 | 4.5 | 4.4 | 5.9 | 100.0 (227) |
| 운수업 | 35.0 | 49.4 | 10.4 | 0.9 | 0.6 | 3.6 | 100.0 (92) |
| 음식 · 숙박업 | 42.3 | 35.3 | 8.9 | 6.1 | 2.7 | 4.7 | 100.0 (142) |
| 금융보험업 · 시설관리업 | 41.7 | 43.1 | 4.9 | 5.3 | 2.4 | 2.7 | 100.0 (165) |
| 전문기술 · 교육 · 보건복지서비스업 | 34.6 | 40.3 | 10.3 | 5.6 | 4.8 | 4.4 | 100.0 (276) |
| 출판 · 통신 · 예술 · 기타개인서비스업 | 24.3 | 43.2 | 14.0 | 9.0 | 7.7 | 1.9 | 100.0 (232) |
| 고등학생 자녀($x^2$=53.4**) | 33.7 | 41.5 | 11.3 | 5.6 | 3.7 | 4.2 | 100.0 (1,743) |
| 농림어업 · 광공업 | 30.9 | 43.4 | 13.8 | 5.4 | 3.1 | 3.5 | 100.0 (139) |
| 전기 · 가스 · 하수 · 폐기건설업 | 42.6 | 40.1 | 7.8 | 2.8 | 1.9 | 4.8 | 100.0 (121) |
| 도 · 소매업 | 32.5 | 39.2 | 12.8 | 5.6 | 4.9 | 4.9 | 100.0 (309) |
| 운수업 | 33.8 | 52.1 | 6.4 | 3.3 | 2.1 | 2.2 | 100.0 (127) |
| 음식 · 숙박업 | 37.9 | 39.1 | 9.0 | 4.5 | 3.7 | 5.7 | 100.0 (216) |
| 금융보험업 · 시설관리업 | 36.4 | 49.5 | 7.1 | 4.6 | 1.7 | 0.6 | 100.0 (198) |
| 전문기술 · 교육 · 보건복지서비스업 | 35.0 | 38.4 | 12.1 | 5.4 | 4.3 | 4.7 | 100.0 (313) |
| 출판 · 통신 · 예술 · 기타개인서비스업 | 28.2 | 42.4 | 14.0 | 10.2 | 2.5 | 2.6 | 100.0 (320) |

* pr 〈0.05, ** pr 〈0.01, *** pr 〈0.001

**표 7. 자영업자 혹은 배우자(15~49세 여성 기준)의 일 종료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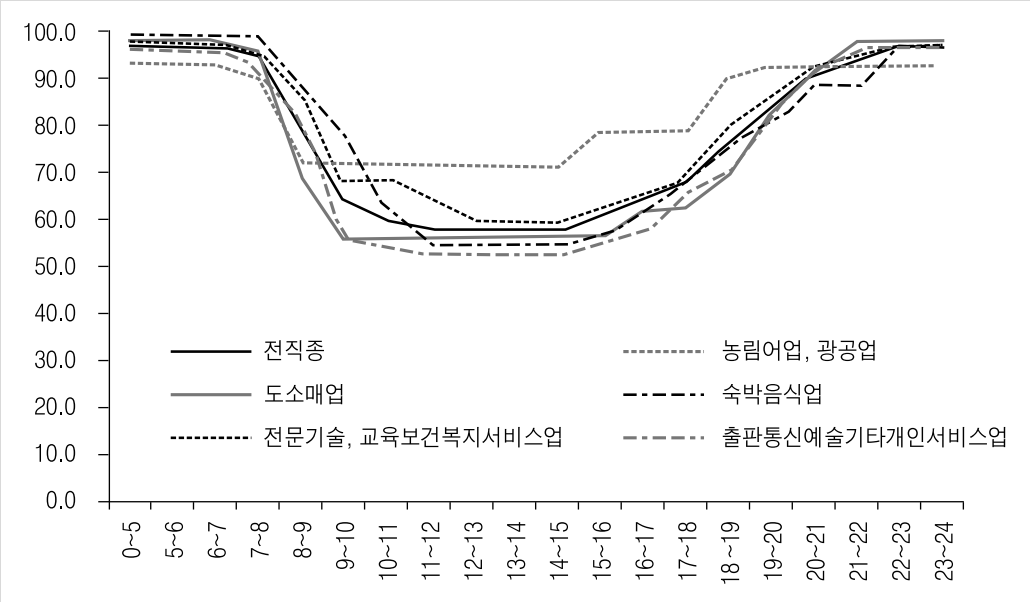
| 구분 | 자영업자 본인 여부 | | 여성기준 | |
|---|---|---|---|---|
| | 자영업자 본인 | 자영업자의 배우자 | 여성 자영업자 | 남성 자영업자의 배우자 |
| 0~07시 | 5.2 | 5.4 | 4.7 | 5.2 |
| 08~18시 | 24.5 | 36.3 | 19.0 | 25.2 |
| 19시 | 14.4 | 9.9 | 14.0 | 9.3 |
| 20시 | 21.5 | 16.8 | 24.1 | 18.1 |
| 21시 | 15.7 | 12.4 | 18.3 | 14.3 |
| 22시 | 13.0 | 12.9 | 15.8 | 18.3 |
| 23시 | 4.8 | 4.5 | 4.2 | 5.4 |
| 24시 | 6.0 | 7.2 | 4.7 | 9.3 |

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 간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시간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농림어업 및 광업의 경우 아침 이른 시간대와 오후 늦은 시간대에 부모의 직접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아침 9~10시와 오후 9~10시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문기술 ·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부 · 모 직접 돌봄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서 타 업종들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 출판 · 통신 · 예술 · 기타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아침과 늦은 오후 및 저녁시간대에 부모의 직접돌봄 비율은 타 업종과 유사하나, 낮 동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아무래도 주간에 부 · 모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늦게 영업을 시작하고 오후 늦게 영업을 마치는 경향성으로 인하여 부 · 모가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도 아침에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오전 10시~11시부터 오후 9시~10시까지는 상대적으로 낮다.

자영업자들이 3~5세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은 아침 7~8시까지 아주 높으나 이후 급격하게 낮아져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10% 미만으로 나타난다. 그 후 시간대에서 부모의 직접돌봄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나 오후 8~9시에 90% 정도를 상회할 뿐이다. 오후 9~12시까지 부 · 모 직접돌봄 비율은 95% 내외로 일부는 늦게 일을 마침으로써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종 간에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오후에는 시간대별로는 차이가 나타난다. 농림어업 및 광업의 경우 오후 시간대에 부모의 직접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기술 ·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오후 4~7시 사이 특정시간대에 부 · 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부 · 모들이 이 시간대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등 비교적 바쁘게 활동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그림 1. 자영업자(부 · 모)의 0~2세 자녀 직접돌봄 비율(시간대별)**

(단위: %)




주: 일부 업종(전기 · 가스 · 하수 · 폐기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 시설관리업,)은 사례수가 적어 전 직종에만 포함시키고, 분리하여 분석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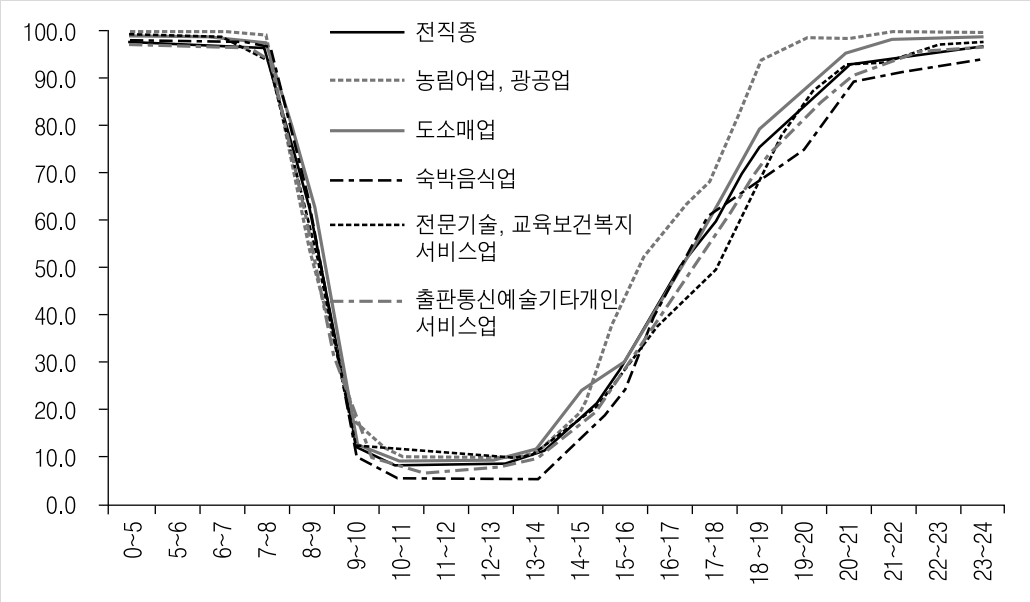
부모들이 직접 돌보는 비율은 아침 9시~오후 4시까지 가장 낮고, 오후 4시~오후 7시까지 타 업종과 유사하나, 이후 오후 12시까지 다시 가장 낮다.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부 · 모가 오전 늦게 영업을 시작하고 오후 늦게 영업을 마치는 근로시간 사이에 자녀양육을 위한 부부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등의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5세 자녀들도 부모의 자영업 업종의 특성에 따라 오후는 물론 밤늦게까지 홀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을 보면, 등교 이전에는 대부분 부모들이 돌보고, 이후 오후 1시까지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다. 방과 후에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오후 4시까지 완만하게 높아지고, 이후 시간대에서는 급격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후 8시~오후 12시까지 부모의 직접돌봄 비율은 87~92% 정도로 많은 자녀들이 홀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과 출판 · 통신 · 예술 · 기타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의 직접돌봄 비율이 오후 늦게까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숙박음식업이나 기타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부모의 영업시간에 따라 밤늦게까지 자녀들을 돌볼 수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홀로 보내는 시간

그림 2. 자영업자의 3~5세 자녀 직접돌봄 비율(시간대별)

(단위: %)




대를 보면 오후 5시~오후 7시 사이로 5% 내외가 집중되어 있다. 아동이 홀로 있는 비율을 업종별 및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 광공업 경우 오후 4시~오후 6시에 5~8% 정도, 도 · 소매업의 경우 오후 5시~오후 8시에 5~9% 정도, 금융보험업 · 시설관리업의 경우 오후 4시~오후 8시 사이에 6~7% 정도, 음식 · 숙박업의 경우 오후 6시~오후 8시 사이에 5% 정도, 전기 · 가스 · 하수 · 폐기건설업의 경우 오후 4시~오후 7시 사이에 4~8% 정도, 전문기술 · 교육 ·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오후 4시~오후 7시 사이에 5~8%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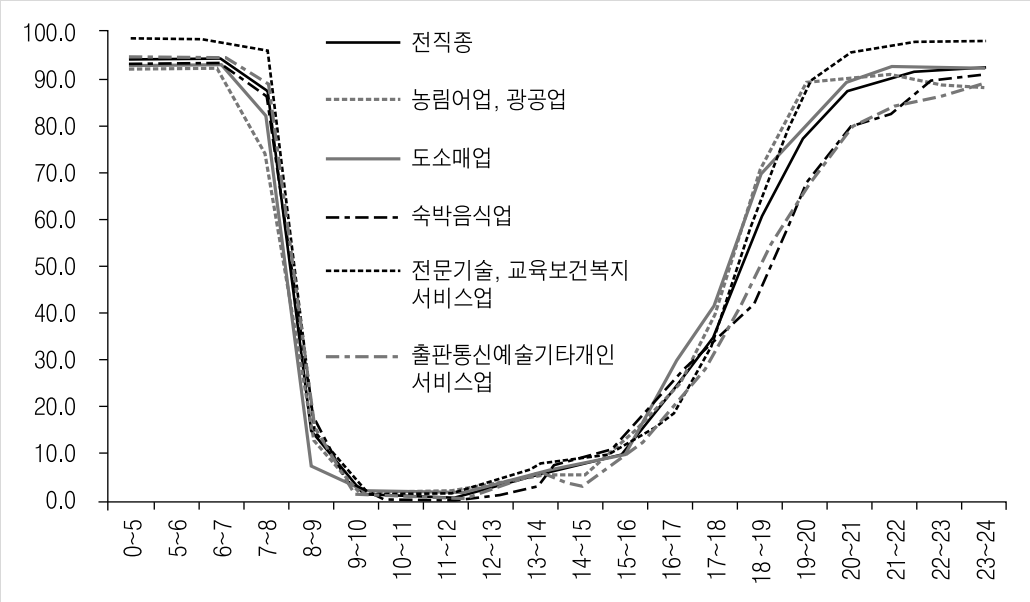
## 4. 정책적 함의

자영업자들의 출산 및 양육은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들은 정책 등을 통해 충분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영업은 가계 수입을 위하여 선택한 직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선택한 직업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출산수준은 적어도 전체 취업여성에 비해 높아야 하나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 즉, 자영업이라는 근로형태의

그림 3.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직접돌봄 비율(시간대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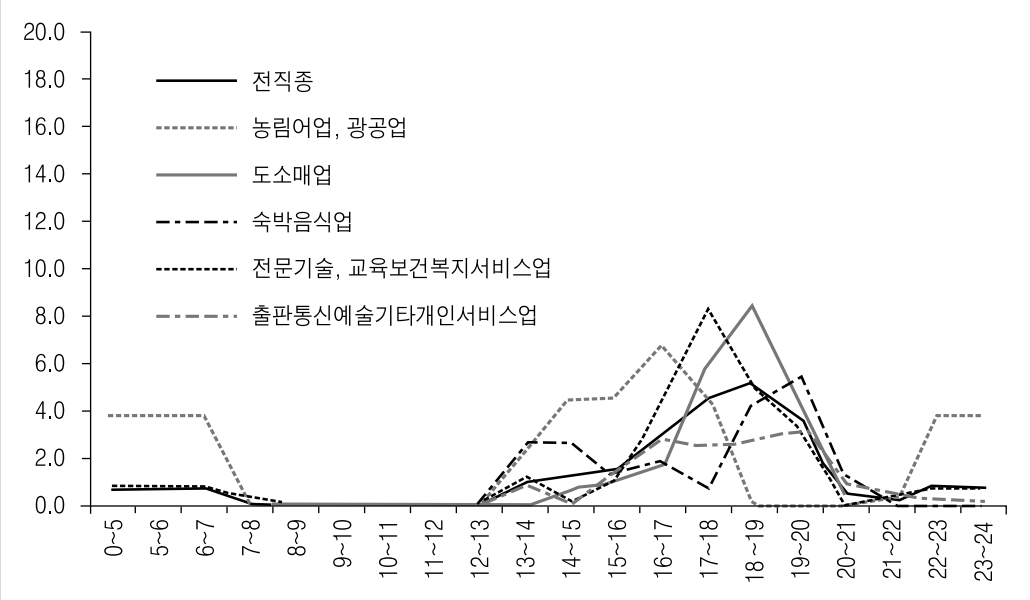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도 고객관리 등의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여야 하며, 출산이나 양육 초기에 휴직을 하여야 하는 등 임금근로 여성들과 같이 일-가정양립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자영업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임금근로 등을 경험한 이후에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층은 가임기의 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대상 가구의 67.8%가 임금근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여성 연령 기준으로 자영업자 연령층 중 40대가 73.1%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자영업자들 중에는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출산을 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자영업자들은 만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실제 무자녀나 1자녀만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근로형태(영업시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가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요컨대 자영업의 근로형태 등 특수성을 감안한 보건의료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자영업자들 역시 자녀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 중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적어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며,[2]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영업자

**그림 4.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홀로 있는 비율(시간대별)**

(단위: %)




들의 출산수준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그만큼 자녀 출산 및 양육 시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할 것이며 노후를 위한 저축 등도 부담이 될 것이다. 요컨대,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제도와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에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의 출산행위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들 중 하나는 소득과 직업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영업자에 내재된 문제로 사회경제 거시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을 방치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이나 질 높은 인적자본 확보에 상당한 장애가 되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절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통계청의 2011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6.3만원이며 이중 근로자가구는 384.5만원, 근로자외가구는 269.5만원으로 나타남. 본 조사에서 실시한 자영업자 조사 결과로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346.9만원 수준으로 전국 가구의 소득수준보다 높으나 근로가구의 소득수준보다는 약 40만원 정도 낮게 나타남. 한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영업 업종간 소득편차가 연소득 기준으로 약 1,500만원(최저 운수업 2,236만원, 최고 전기 · 하수 · 건설업 3,704만원)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음.

다섯째, 자영업자들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가정 내 교육과 정서적 교감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야간에 운영되는 경향이 높은데 비해 일반적으로 보육 등 돌봄서비스는 주간에 한정하여 제공되고 있어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간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영업자 등 야간 보육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야간 돌봄 도우미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농림어업 · 광공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자녀 질병 시 서비스 부족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지역적으로 농 · 어촌이나 광촌 등 보건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경우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시간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녀양육 가정을 위해서 보건의료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